

최순우 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

문명대*

- I. 머리말
- II. 최순우 선생의 학문적 생애
 - 1. 개성부립박물관 시절(1943-1945년)
 - 2. 국립박물관 미술연구실 시절(1945-1974년)
 - 3. 국립박물관장 시절(1974-1984년)
- III. 최순우 선생의 학문적 업적
 - 1. 한국미 탐구의 선각자
 - 2. 도자사 연구의 개척자
 - 3. 회화사 연구의 선구자
- IV. 맺음말

I. 머리말

받은 공덕은 바위에 새기고
배운 공덕은 모래에 새겨라.

해곡 최순우 선생 탄생 100 주년을 맞아 앞의 경구가 새삼스러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왜일까. 선생은 정말 인자한 품모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는 것이 선생을 아는 모든 이들의 공통된 추억이다. 나도 선생을 뵈을 때마다 한결같이 인자한 모습으로 따뜻이 맞이해 주시던 기억이 생생하다.

해곡 선생은 나의 박사과정 은사이시다. 불교회화사 강의를 선생에게 일대일로 지도를 받기를 몇 년간 계속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선생에게 학문적 은혜를 입은 제자이다.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또한 1년에 한두 번 미술사 전공 연구 제자를 추천하라는 부탁을 매년 받아 10 여 명 넘는 많은 연구자들이 국립박물관 학예직으로 발탁되었고, 교수임용 직전에는 국립박물관 학예관 제의도 해 주시었으니 사회적 은혜도 듬뿍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 자료조사는 물론 학회의 업무도 아낌없이 지도, 협조해주었고 더 나아가 곧게만 살면 부러지니 유연하게 살라는 인생 상담도 아낌없이 해주신 분이니 인생의 사부(멘토)이시기도 하다.

선생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바위에 새겨 조금이나마 회향하고픈 마음으로 혜곡 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를 간략히 살펴 선생의 영전에 올리하고자 한다.¹⁾

II. 최순우 선생의 학문적 생애

혜곡 선생은 1916년 4월 27일에 개성에서 태어났다. 고유섭 선생과는 11살 차이이다. 선생의 가정은 중류층에 속하는 단란한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5년 19세 때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이후 8년만인 27세 때 1935년 개성부립박물관에 들어가 고유섭 관장을 모시고 관원생활을 시작한다.

1. 개성부립박물관 시절 (1943-1945년)

선생이 개성부립박물관에 관원생활을 시작한 1943년은 우현(又玄) 고유섭 선생이 박물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우현 선생은 이 당시 신병을 앓고 있어서 학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 못하여 적극적인 지도는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음양으로 우리 미술사의 이해나 연구방법 등에 우현 선생의 지도를 각별하게 받았던 셈이다. 이전부터 황수영 박사와 진홍섭 박사도 개성부립박물관에 드나들면서 우현 선생에게 사사하고 있어서 개성 3걸이 모두 우현 선생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으므로 이

1) 이 글은 2016년 6월 간행된 혜곡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최순우 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에 게재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논문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문명대 「최순우 선생의 생애와 학문」
- ② 이원복 「최순우 선생의 회화사 연구」
- ③ 최용천 「최순우 선생의 공예사 연구」
- ④ 김창균 「최순우 선생의 불화와 불상 연구」
- ⑤ 소재구 「최순우 선생의 석조 미술사 연구」

이 외에 2018년 6월에 간행된 『한국 미술사학과 개성학파』, (사, 한국미술사연구소, 2018.6)에 게재된

- ① 최용천 「최순우론」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후 한국미술사학계를 이끈 3 인방이 이 때 짝이 텃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혜곡 선생만은 우현 선생을 항상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지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현의 말년 제자였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우현 선생의 일기에 최균을 가끔 언급하고 있어서 그간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른바 혜곡 선생은 1943년부터 1944년까지와 우현 선생 사망 후 1945년 까지 우리 미술사연구 수업시대라 할 수 있고 우현 선생에게 1대 1로 지도받은 실제적인 미술사학과 대학원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혜곡 선생의 학문적 바탕은 바로 이 시기에 거의 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국립박물관 미술연구실 시절 (1945-1974년)

혜곡 선생은 해방된 1945년에 서울 국립박물관으로 전근하게 된다. 우리의 손으로 국립박물관을 운영해야 하던 당시에 박물관 학예직의 경험이 있는 직원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고유섭 선생에게 직접지도를 받은 혜곡 선생의 개성부립박물관 경험은 국립박물관으로서는 가장 필요했던 것이다. 국립박물관으로 옮긴 혜곡 선생은 활발히 활동한다. 8.15 직후에는 개성의 유명한 흥왕사(興王寺)를 실측 조사한 후 간략한 발굴도 하는 등 유물 유적 조사와 발굴을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²⁾.

1948년 1월에는 황수영 박사도 국립박물관 학예관으로 들어갔고 진홍섭 박사 역시 개성박물관장에서 경주박물관장으로 전근하게 되는 등 개성 3 걸이 모두 국립박물관으로 모이게 된다. 이 당시 국립박물관의 학문적 분위기는 협동연구를 위주로 연구하는 편이어서 서로 간의 소통이 활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 가는 고난의 시기가 닥친다. 상당기간 깊이 있는 조사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개성 3 걸 가운데 황수영 박사는 서울 잔류파여서 서울 수복 직후에는 퇴직하게 되어 국립박물관의 개성 3 걸은 다시 흩어진 셈이 된다³⁾.

내가 혜곡 선생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1967년인가 68년인가 그 즈음에 덕수궁의 국립박물관 미술과장실이었다고 기억된다. 연가 7년명 금동불입상이 발견된 후 불상을 조사하게 되었을 때였다. 불상을 열심히 채고 그리면서 약간 건드리니 불상 광배가 덜렁거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라 간신히 붙이고 있는데 혜곡 선생님이 마침 들어오시면서 놀라 허둥대는 나를 보시고는 “아 문 선생,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원래 부러진 것을 붙여놓은 것이니 걱정 말아요” 하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 인자한 말씨며 풍모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었고 그때부터 혜곡 선생의 팬이 된

2) 최순우, 「흔하지 않은 이야기」,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 (학고재, 1994.6).

3) 문명대, 「황수영 박사의 생애와 학문세계」, 『강좌미술사』43, (사)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12), pp-205-220.

것 같다.

이 시절 혜곡 선생은 도자기 가마 조사와 발굴 그리고 회화 · 도자기 연구는 물론 국내외 박물관 전시에도 주력하게 된다. 광주⁴⁾, 전남 강진⁵⁾, 전북 줄포 등 많은 도요지를 찾아 산야를 누비거나 발굴하는 일이 일상사였던 시절이었다. 혜곡 선생은 도요지 조사와 발굴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동화출판사의 한국미술전집 중 『고려도자』(1973)를 책임 편집 · 집필하는 등 도자사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회화』나 『목칠공예』도 같은 전집에서 책임편집 집필하는 등 미술사 연구 및 집필활동을 활발히 한 것이다⁶⁾.

이와 함께 수많은 국 · 내외 전시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전시에 대한 혜곡 선생의 혜안은 정평이 나있다. 이 가운데 “한국미술 2 천년 전”은 자타가 공인한 우리나라 전시사상에서 우리나라 미술을 집대성한 최초이자 초고의 명 전시로 이름나 있다. 혜곡 선생이 국립박물관학예실장으로서 마지막을 장식한 전시였다고 할 수 있다⁷⁾.

3. 국립박물관장 시절 (1974-1984년)

혜곡 선생은 1974년 학예실장에서 관장으로 승진한다. 개성박물관 관원이 된지 31년 만에 드디어 국립박물관의 최고위직에 오른 것이다. 말단 관원에서부터 관장으로 오른 최초의 진정한 박물관맨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0년간이나 관장직에 재직했으므로 김재원 관장 이외에는 최장수 관장직을 누리다가 관장직에서 순직한 최초의 진정한 국립박물관원이라 하겠다.

혜곡 선생은 관장에 취임하자마자 진정한 국립박물관맨으로써 한국미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세계적인 전시회를 기획한다. 바로 “한국미술 5 천년 전”이다. 1973년 “한국미술 2 천년 전”을 개최한지 3년만이자 관장에 취임한지 2년만의 일이다. 1976년에 개최된 “한국미술 5 천년 전”은 한국미술 2 천년 전 보다 훨씬 방대하고 보다 심도 있는 전시로 한국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기획전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혜곡 선생의 한국미에 대한 안목을 유감없이 발휘된 명실상부한 명 전시

4)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① 최순우, 「광주 고려시대 도요지 발굴조사-무등산 금곡요지」, 『업적보고서』, 1962-1963년, (동아문화연구위원회, 1964.8).
② 최순우, 「광주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 약보」, 『考古美術』6-6, (고고미술동인회, 1965).
③ 최순우, 「강진 사당리 출토 고려청자 전」, 『考古美術』8-11호, (고고미술동인회, 1967.12).

5) 최순우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 청자와」, 『美術資料』9, (국립박물관, 1964).

6) 최순우, 『繪畫』, 『高麗陶磁』, 『木漆工藝』(同和出版社, 1973).

최순우, 「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18(高麗)(小學館, 1978).

7) 國立博物館, 『韓國美術二千年展』, (서울, 1973).

였다⁸⁾. 이 전시를 밑받침한 혜곡의 안목과 학문적 능력을 잘 알려주는 업적이 1978 년에 출간된다. 바로 『한국미술오천년』이다⁹⁾. 도판 378 점 (고분미술, 토기와진, 도자기, 선사미술, 금속공예, 불상, 회화, 목칠공예 등 8 부)과 논설 (한국미술사, 연표 등)⁷⁾ 쪽으로 이루어진 전무후무한 도판적 대형 『한국미술사』 저서라 할 수 있다. 40 년에 가까운 한국미술 연구가 온축된 도판적 한국미술사로써 혜곡의 학문이 유감없이 발휘된 명저라 할 수 있다. 혹자는 혜곡선생은 미술사학자라기 보다 미술탐구가에 불과하다고 평하기도 하지만 이 저서를 보고 냉정히 평가한다면 당시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미술사 명저요 따라서 혜곡선생은 가장 뛰어난 한국미술사학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립박물관장 취임 후 이런 학문적 업적을 이루는 한편 혜곡 선생은 1976 년부터 4 년간 한국미술사학의 중심이 되는 한국미술사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한다. 즉 혜곡선생은 국립박물관장이라는 우리 문화계 관직의 최고위직과 함께 우리 문화계 학문의 수장인 미술사학회의 회장이 된 것이다. 두 번이나 연속으로 학회장이 되어¹⁰⁾ 진정한 우리나라 미술사학계를 이끌었으므로 이 기간이야말로 혜곡 선생 일생의 절정기라 할 수 있다.

Ⅲ. 최순우 선생의 학문적 업적

1. 한국미 탐구의 선각자

혜곡 선생은 한국미를 단순히 이해하고 사랑한 것을 넘어 한국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체득한 미술사가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정양모 선생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하고 있다.

“최순우 선생은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도인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활까지도 세속에서 벗어나 탈속의 경지에서 의연하게 사시려고 평생을 노력한 분이기도 하다¹¹⁾.”

말하자면 한국미를 몸소 체득하지 않으면 이런 경지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8) 國立博物館, 『韓國美術五千年展』, (서울, 1976).

9) 최순우, 『圖說韓國五千年』(현암사, 1978.6).

10)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50년사』, (고호, 2010.11), p 71.

11) ① 정양모, 「혜곡 최순우 선생을 기리며」,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 1994.7)

② 최순우, 『崔淳雨全集』 I, 발간사 (학고재, 1992), pp15-23.

사실 우현 고유섭 선생도 우리의 아름다움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지만 혜곡 선생의 농익은 체득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혜곡 선생은 우현 선생을 계승한 것이 분명하지만 오랜 연륜으로 농익었다고나 할까, 더 나아가 이해를 넘어 체득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분의 한국미 이해는 조선시대의 한국미 이해라 하는 것이 보다 바른 해석이 아닐까 한다. 조선의 아름다움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말이다. 어쨌든 혜곡 선생은 고유섭 선생의 한국미 이해를 계승해서 더욱 폭넓고 보다 심도 있고 더 나아가 난숙하게 체화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혜곡 선생은 우현이후 조선적 한국미를 탐구한 제 1 인자 이자 선구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혜곡 선생은 그가 체득한 한국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¹²⁾.

1. 순리의 아름다움이다. 순리의 아름다움이란 억지가 없는 아름다운 사물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 편안한 아름다움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
2. 담조(淡調)의 아름다움이다. 본격적인 한국 그림과 도자기·목공예를 늘어놓고 그 앞에 한복을 입은 한국사람을 세워놓고 보면 그 신기한 담조의 색상에 놀라게 된다는 것이다.
3. 익살의 아름다움이다. 익살의 아름다움은 한국의 회화·조각·공예·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흔히 느껴지는 즐거움이다. 특히 민중적인 미술이나 공예에서 대담한 생략과 과장 등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4. 고요의 아름다움이다. 수다스럽지 않고 껌기가 없는 고요의 아름다움은 한국미술의 맵시나 색감·공간구성에 모두 공통적으로 표현된다고 보고 있다.
5. 분수에 맞는 아름다움이다. 주위환경에 적절하고 쾌적한 조화를 주는 아름다움이 분수에 맞는 아름다움인데 우리의 모든 미는 자연스러운 조화의 아름다움을 잘 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을 한국미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 특히 조선미의 독특한 특징을 찾고 연구하여 분명히 이해한 선각자일 뿐만 아니라 이를 몸소 체득하여 널리 국내의

12)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 ① 최순우, 「한국미술의 흐름-한국미술의 참모습」, 『崔淳雨全集』1, (학고제, 1992), pp39-46.
- ② 김명숙, 「최순우의 실증주의적 한국미술사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③ 김정아, 「최순우의 한국미 서술에 나타난 어휘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④ 이충렬, 『혜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 (김영사, 2012).

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었다고 할 수 있다.

2. 도자사 연구의 개척자

개성 3 걸 가운데 황수영 교수와 진홍섭 교수는 우현 고유섭 선생의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인 불교 미술 연구를 계승하여 불교미술을 전공한 학자로 성장한데 비해 최순우 선생만은 우현의 부차 연구 분야였던 도자와 회화분야를 전공하여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개척자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 도자기 가령 고려청자나 조선백자 등에 대한 연구는 당시까지 고유섭 선생만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논의한 적이 있을 뿐 조사·발굴에 의한 본격적인 연구는 혜곡 선생이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므로 한국 도자사연구의 개척자이자 선구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즉 도요지들의 조사나 발굴을 통해 구체적인 실물연구나 발굴에 의한 층위연구 등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청자의 성격이나 특징 그리고 편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그 결과물이 「고려청자의 편년」, 「고려청자의 문양」, 『동양도자대관』의 「한국도자」 등 여러 편의 연구논문과 『고려청자』(同和出版社), 『한국미술 5 천년』 중 「한국도자사」, 『한국청자요지』, 『高麗의 靑磁』(近藤出版社, 1983), 『高麗·李朝の陶磁』(毎日新聞社, 1974) 특히 「한국도자사」는 최초의 한국도자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도자사 연구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崔淳雨全集』에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¹³⁾. 따라서 혜곡의 도자사 연구는 우리나라 도자사 연구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혜곡 선생을 계승하여 이 세대 연구를 이끈 학자는 정양모 국립박물관 전관장이다.

3. 회화사 연구의 선구자

혜곡 선생은 도자사 연구의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회화사 연구에도 선구자가 된다. 회화사연구의 불모지였던 해방 직후부터 회화사 연구 분야를 연구해온 혜곡 선생은 국립박물관의 풍부한 회화자료와 감정 의뢰하는 회화자료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자료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꾸준히 연구하여 “한국 회화사”를 집필했고 많은 논고들을 남기고 있다. 「이조의 수묵화」, 「고구려고분벽화 인물도의 유형」, 「몽유도원의 경지」, 「검재 정선」, 「표암유고의 회화사적 의의」, 「풍속화세대의 증인 김홍도」, 「단원 김홍도의 재세연대고」, 「조선회화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한국미술전집 회화』 등 주옥같은 논고를 집필했다. 특히 「한국회화의 흐름」은 한국회화약사로써 후학들에게 회화사 연구의 귀감이 되고 기준을 제시한 논고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선생의 대안목으로 작품을 선정하여 유려한 문장으로 논의한 글들은 후학들의 지침이자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¹⁴⁾.

13) 최순우, 「도자기-한국도자사」, 『崔淳雨全集』1, (학고재, 1992)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화의 중요성을 간파한 선생은 유명한 송광사 불화를 조사하여 『한국의 불교회화-송광사』를 펴내어 우리나라 불화연구의 단초를 여는데 지도력을 발휘한다. 말하자면 불화 조사 연구의 개척자 역할을 한 것이다¹⁵⁾. 선생의 우리나라 회화사 연구에 대한 철학 중 미술사관은 이 책 발문에서 잘 제시되고 있다.

“한국회화사 연구”는 아직도 기본자료의 조사집성과 그 세부고찰이 더 아쉬운 단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은 이러한 회화사 연구의 현황 속에서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기초작업의 하나로써 두 가지의 년차 조사사업을 계획 실시 중에 있다. 그 하나가 전국민간소장의 한국일반회화조사이며, 다른 하나가 전국사찰소재의 불교회화조사이다. 여기에 특히 불교회화에 주목해서 전국조사를 기획하게 된 것은 ①한국불교회화사 연구의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 ②고대한국회화발달의 요람이 초기불교회화발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초기적 발달양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고격을 이어왔다는 점, ③따라서 비록 근세의 불교회화가 지니는 표현기량이나 종교적 이념의 저조를 감출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수천의 이조회화 작품들은 한국회화사 전반의 동태를 엿볼 수 있는 깊은 함축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¹⁶⁾. 이 발문도 최순우 선생의 회화사관과 불교회화사관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글이며, 선생의 탁월한 안목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글쓴이는 1968년에 동국대 박사과정 중 불교회회사와 회화사 강의를 혜곡 선생에게 들었는데 일대일의 강의에도 성의를 다해 대화하듯 재미있게 불화강의를 하시던 선생의 모습이 아직도 선연히 떠오르곤 한다. 그때의 발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내 의견도 올린바 있다. 아마도 박사과정에서 불화강의를 선생에게 들은 유일한 학생이 아니었나 싶다.

불화연구에 대한 선생의 관심은 신라 화엄사경변상도에 대한 아름다운 글(「화엄경권의 표장화」, 1978)을 남기게 되며, 「국립박물관 소장 이조시대 초기 阿彌陀三尊像幀畫」(1973), 「嘉靖 乙丑年 作 藥師如來三尊佛幀」 이외에도 선생은 공예, 특히 목칠공예의 독보적인 연구자로서 이 방면에도 선구자가 되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조각에도 관심을 기울여 한국조각사개설과 연가 칠년 명 금동불 입상에 대한 논고도 남기게 된다. 말하자면 한국미술사 전반에 걸쳐 높고 심도 깊은 안목으로 우현 선생이후 실사연구의 바탕 하에 논의를 한 최초의 학자이자 개척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도 특히 도자사와 회화사 연구의 개척자이면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독보적 대안목의 소유자라는 명예를 가졌다고 하겠다.

14) 최순우, 「한국회화의 흐름, 논고」, 『崔淳雨全集』3, (학고재, 1992)

15) 國立博物館, 『韓國의 佛教繪畫, 松廣寺』(1970.12)

16) 최순우, 「발(跋)」, 『한국의 불교회화, 송광사』, (1970.12), p88.

IV. 맺음말

이 논문은 최순우 선생의 학문적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글이다. 우선 선생께서 걸어간 생애와 업적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혜곡 선생은 평생을 시종일관 국립박물관에서만 근무했던 최초의 진정한 박물관맨이고 학문적으로 한국미술사를 개척한 개성 3 걸 가운데 맏형이다. 특히 한국도자사와 한국회화사를 한국 처음으로 전공한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우현 고유섭 선생에 이어 한국미 탐구를 진정으로 체득한 유일한 선구자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선생의 탄생 100 주년을 맞아 선생의 학문적 생애와 업적을 간략하게나마 선생의 영전에 올릴 수 있게 된 점, 제자의 한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 감사말씀을 올린다.

주제어(Key Words)

국립박물관(The National Museum), 최순우 선생의 생애(Choi Sun-wu's Life), 한국회화사(Korean painting history), 한국도자사(Korean ceramics history), 한국공예사(Korean industrial history), 한국의 미(Korean beauty)

〈참고문헌〉

- 國立博物館, 『韓國의 佛敎繪畫, 松廣寺』(1970.12)
國立博物館, 『韓國美術二千年展』, (서울, 1973)
國立博物館, 『韓國美術五千年展』, (서울, 1976)
문명대, 「황수영 박사의 생애와 학문세계」, 『강좌미술사』43, (사)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12)
정양모, 「혜곡 최순우 선생을 기리며」,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 1994.7)
최순우 「강진 사당리요지 출토 청자와」, 『美術資料』9, (국립박물관, 1964)
최순우, 「광주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 약보」, 『考古美術』6-6, (고고미술동인회, 1965)
최순우, 「발(跋)」, 『한국의 불교회화, 송광사』, (1970.12)
최순우, 『繪畫』, 『高麗陶磁』, 『木漆工藝』(同和出版社, 1973)
최순우, 「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18(高麗)(小學館, 1978)
최순우, 『圖說韓國五千年』(현암사, 1978.6)
최순우, 『崔淳雨全集』I, 발간사 (학고재, 1992)
최순우, 「한국회화의 흐름, 논고」, 『崔淳雨全集』3, (학고재, 1992)
최순우, 「흔하지 않은 이야기」,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 (학고재, 1994.6)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50년사』, (고호, 2010.11)

최순우 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

문명대

이 논문은 최순우 선생의 학문적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글이다. 선생께서 걸어간 생애와 업적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혜곡 선생은 평생을 시종일관 국립박물관에서만 근무했던 최초의 진정한 박물관맨이고 학문적으로 한국미술사를 개척한 개성 3 걸 가운데 만형이다. 특히 한국도자사와 한국회화사를 한국 처음으로 전공한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우현 고유섭 선생에 이어 한국미 탐구를 진정으로 체득한 유일한 선구자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선생의 탄생 100 주년을 맞아 선생의 학문적 생애와 업적을 간략하게나마 선생의 영전에 올릴 수 있게 된 점, 제자의 한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 감사말씀을 올린다.

| Abstract |

Choi Sun-wu's Life and His Academic World

Moon Myeong-dae

This study is a brief review of Choi Sun-wu's academic life and achievements. I think it is also meaningful to organize his academic life and achievements with which he went through. Based on this, I look forward to a more in-depth discussion.

As I put an emphasis once again, Hyegok is the first true museum man who has been working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or the rest of his life, and he is the eldest brother of the three Gaesung outstanding figures who pioneered Korean art history academically.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his being a pioneer in Korean ceramics history and Korean painting history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t is accredited by everyone that he is the only pioneer who has truly experienced the exploration of Korean beauty following Wu-hyeon Ko Yu-seop. In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birth, as one of the disciples, I am pleased to be able to place brief explanations of his academic life and achievements before the spirit of the forerunner, and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him.

논문투고일 2018년 10월 30일 | 논문심사일 2018년 11월 2일 | 논문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3일